

덥고 끈적끈적한 여름은 인간을 편하게 해주는 계절과는 거리가 멀다. 땀이 많이 나 화장이 얼룩져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스트레스도 많이 주는 이 계절은 인간을 괴롭히는 곰팡이가 자라는데 아주 적합해 피부진균증에 걸린 사람을 못견디게 한다.

무좀, 의학적으로 족부백선이란 이름의 이 질환이 피부진균증의 대표적 질환으로 무덥고 긴 여름 밤을 잠 못 이루게 만든다. 이들 진균은 각기 자신의 특유한 피부병변을 보이는 것도 있으나 몇가지 종류의 진균은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병변을 보여 발에 붙으면 족부백선(무좀), 몸에 병변을 일으키면 체부백선 등으로 이름을 붙인다.

무좀하면 의학상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금방 알아차릴 정도로 흔한 병이며 항상 우리 주위에 있다. 이 증상은 발에 곰팡이(眞菌)가 기생, 가렵고 긁으면 찰상이 생겨 2차 감염으로 붓고 아프다.

신발도 신기 어려운 이 고질적인 피부병은 발을 내놓고 살았던 오랜 옛날 혹은 짚신 등 헐거운 신을 신었던 근세까지도 별로 많지 않았다.

그러나 꼭 끼는 화학섬유의 양말이나 구두를 신기 시작하면서 생겨 악화된, 구두 문화의 사생아라 할 수 있다. 몇가지 안되는 곰팡이로 인한 피부병은 그래도 나올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거나 나올 때까지 그 환경을 지속시켜주면 쉽게 나올 수도 있다. 틈만 나면 가려워 남 앞에서 긁어야 하는 혐오스러운 무좀의 종류는 한가지가 아니라 발생형태나 증상에 따라 세가지로 크게 나뉜다.

먼저 간찰진행이라 해서 발가락사이, 주로 넷째 발가락사이가 하얗게 짓물러지고 찢어지며 미치도록 가렵고 심한 악취로 주변사람에까지 폐를 끼친다.

이 상태에서 항상 구두를 신어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환자는 세균발생의 배지(培地)가 되므로 2차 감염이 쉽고 발가락 부위가 부어서 신을 신고 걷는데 불편해 점잖은 자리에 참석하기도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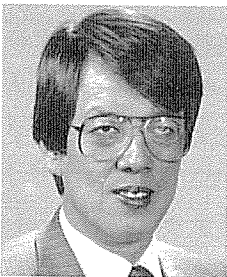
두번째는 물집(水泡)형이다. 발바닥이나 발 옆에 깨알보다 큰 물집이 생기고 터뜨려보면 누런색의 젤라틴 비슷한 액체가 나오고 이들이 건조되면 아주 보기 싫은 두꺼운 가피가 형성된다. 이 형태의 무좀은 갑자기 더운 환경으로 바뀐 생활환경에 노출된 사람에게 잘 발생되며 발목에까지 병변이 생겨 아주 괴롭게 된다.

마지막으로 염증은 거의 보이지 않는 만성형으로 발의 두꺼운 부위에 부슬부슬한 밀가루같은 인설이 덮여있는 무좀도 있다. 발의 측면에 중등도의 습진 비슷한 병변도 보이는 이런 무좀형태는 감염에 약한 체질 또는 발에 상처가 난 경우에 쉽게 발병된다.

무좀은 주위 누구에게나 있다고 착각되는 흔한 피부병으로 민간요법도 많고 약국에서 쉽게 약을 살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낫다가 재발되는 수가 많다. 그것은 발의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가능하면 발을 노출시켜 통풍이 잘 되도록 하고 샌들을 신어 발가락이 조이지 않도록 한다.

흔히 전형적인 무좀에도 내복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항진균제의 복용은 그 부작용에 항상 경계를 해야 되며 필수적으로 이런 약을 무좀에 복용한다는 것도 올바른 치료법은 아니다.

무좀은 완치가 가능한 병이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그리고 예방책이 요구되는 것이지 결코 불치의 병은 아니며 항상 곰팡이세균은 조건만 갖춰지면 다시 감염될 수 있다. ⑤7



국 홍 일
(피부과 전문의)